

大學에서의 學業成績評價 개선방안 연구

- ◇ 이 研究論文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1991 년도 自體 ◇
- ◇ 研究의 일환으로 李星珍(서울大·연구책임자) 교수 등에 ◇
- ◇ 의해 수행된 것이다. 紙面 관계상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하 ◇
- ◇ 지 못하고 目次 및 주요 부분만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1. 目 次

- I. 序 論
- II. 理論的 基底
- III. 學業成績評價의 實態 및 問題點
 - 1. 試驗問題의 出題
 - 2. 試驗監督 및 採點
 - 3. 課題物의 評價 및 處理
 - 4. 學業成績의 評價方式
 - 5. 學業成績에 대한 異議提起 및 訂正
- IV. 學業成績評價에 관한 學生意見
 - 1. 評價의 公正성과 信賴性
 - 2. 試驗問題 및 試驗雰圍氣
 - 3. 課題物(리포트) 評價
 - 4. 成績評價에 대한 滿足度
 - 5. 其 他
- V. 學業成績評價의 改善方案 : 論議와 提言

類例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劇的인 量的 發展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이런 量的 發展은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量産을 통해서 세계 무역 10위권의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급속한 量的 成長에 발맞추어 대학의 內質的 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한국 대학의 고민과 문제점이 되어 왔다는 것 또한 공인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문제점이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되리라는 展望이 전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加重되는 느낌조차 있다. 물론 최근에 대학의 自律化나 대학 행정의 民主化 등의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학(특히 私學)의 구조적인 財政的 貧困, '7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학원사태와 그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현상, 최근의 大學入試 不正을 포함한 대학내부의 非理 등 부정적이고 암울한 측면은 대학교육의 內的 發展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불투명한 것인가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2. 學業成績評價의 改善方案 : 論議와 提言

- 1) 大學教育의 發展과 評價方法의 改善
- 지난 45년 동안 한국의 대학이 세계에서 그

그러나 한국 대학들의 이러한 어두운 측면은挫折의 빌미로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의 긴요성과 절박성을 일깨워 주는 지렛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한 소신이다. 연구자는 여기서 대학 발전을 위한 原論의 인 논의를 전개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물론 대학 발전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우선순위에도 거의 매겨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大學財政의 확충, 우수 教授要員의 확보, 시설과 도서 및 교육기재의 개선과 현대화 등은 대학교육의 質을 높이고 대학발전의 內質化를 기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前提的 要件이다.

또한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넓게 보아서 대학 강의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즉, 강의와 성적평가가 모두 교수의 固有權限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강의의 質은 평가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되며, 평가는 강의의 質的 改善에 연계되어야 할 連繫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質이 궁극적으로 하나하나의 강의의 質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면, 강의의 質을 확인시켜 주고 향상시켜 주는 측면에 역할을 평가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종래에도 강의나 평가의 개선을 위해 教授 個人次元의 노력이나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結集되고 組織化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노력과 시도가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 또는 독려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교수 개개인의 자각과 인식 변화를 토대로 하는 대학내의 共感帶 形成과 無理없는 制度化를 통해서, 자발적·자율적인 노력의 결집화와 영속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時期的으로도 대학 강의나 성적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한 대학의 自律的 努力이 활성화되어야 할 時點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근래 대학 자율화의 폭이 점차로 확대되고,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강의와 성적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한 대학의 自律的 努力이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2) 評價觀의 變化

성적평가 방법의 기술적인 측면에 앞서서 대학교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評價觀부터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수 개인의 평가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경우, 평가방법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관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지나치게 浪漫的이고 理想主義的인 평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관에 의하면, 평가란 대학교육의 本質을 오히려 그트치게 하는 必要惡의 行爲일 뿐이다. 예컨대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문 탐구에 있어서 고도의 自發性·自律性·獨創性을 함양하는 데 있으므로, 성적평가 행위는 바로 이러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스스로 敗北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성적평점을 의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個性과 獨創性을 말살하는 劃一的이고 專制主義的이며 경쟁을 강요하는 형사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이상주의적 평가관에도 어떤 매력이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출렬한 출제에 이루어진 考査 때문에 교과서나 강의내용을 맹목적으로 암기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서슴치 않는 학생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평가관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평가관이 평가의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즉 이런 평가관을 현실화한다면 평가를 일체 하지 않거나 또는 학생들로 하여금 自己評價를 하는 길밖에 없다. 이상주의적 평가관이 현행의 평가제도나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맹점을 시사하고 비판하는 수준이던 몰라도 이것이 현행 제도나 방법의 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일부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評價方法에 대한 無關心, 無定見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강의를 하고 평가하는 것이 교수의 固有한 權限이므로 어떤 제3자의 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평가관은 자신의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또한 그렇게 실천하는 한 상

당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관을 가진 교수일수록 자신이 대학생일 때에 자주 경험했던 교사방법이나 평가 방식을 아무런 批判意識이나 改善意志 없이 답습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가관은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평가관이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평가관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독선적인 평가관에서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대학과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획일적인 평가관이나 평가의 실제란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교수 개개인의 개성이나 대학교육관을 완전히 초월하는 유일한 최선의 평가관이나 평가의 실제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정견의 평가관이나 독선적·태폐적인 평가관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미 앞에서 대학에 있어서의 평가관이나 평가방법의 개혁과 전환이 外部로부터 주어지는 압력이나 통제에 의해서 강요되는 사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점에 유의하면서도 대학당국이나 대학교수는 성적평가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전개의 일치나 共感帶의 형성이 改革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評價의 개선이 대학 강의의 質의 改善이나 대학교육의 內實化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평가방법의 개선은 대학 강의의 개선이나 대학교육의 質 향상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실 대학교육의 質 향상이라고 하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원대한 목표에 접근하는 方法論의 측면에서도 평가 개선 작업은 손쉽고 구체적인 접근의 통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학생들에 대한 成績 매기기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강의내용의 理解度나 강의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判定하는 작업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활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답안지는 수강생들이 강의내용의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의 이해가 불충분한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는 바로 이와 같은 평가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강의에서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보충해야 하는가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평가는 학생 답안지의 채점과 成績 매기기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③ 평가방법은 교수 개개인의 慣行이나 타성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教授行爲의 한 중요한 측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 評價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가행위는 교수 개개인의 慣行이나 我執 또는 상식에 맡겨질 작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참으로 전문적인 教授行爲의 한 중요한 구성요소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개성을 갖게 되고 특성화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대학 나름의 독특하고 합리적인 評價哲學과 評價原理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평가는 교수 개개인의 차원에서 개선 노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 공동체의 수준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성질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④ 평가가 학생들의 學習方向이나 學習動機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現行 大學入試가 고등학생들의 학습생활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강의내용이나 교과서 내용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려는 현상도 마지코 보면 考査가 그런 암기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대학교수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일변도의 시험문제가 대학의 성적 평가에서 주종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교수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강의의 主要 講義目標을 명세화하여 서술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주시시키는 한편, 출제에 있어서는 명문화된 강의 목표가 실제로 학생들에 의하여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밝혀 볼 수 있도록 교사 문항들을 具案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습득하게 하려는 능력이 암기

력만이 아니라 깊이있는 理解力, 適用力, 問題解決力, 綜合力, 批判力 등의 다양한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학의 강의는 이와 같은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學習機會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평가는 이러한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길러졌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의 學習方向을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⑤ 評價結果가 학생들의 대학교육 성과를 판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의 결과는 그들이 대학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습득했으며, 무엇을 어느 정도나 아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立證해 주는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은 인식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장학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취업이나 진학을 희망할 때 어떤 추천서를 쓰느냐 등의 결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 기록은 그러한 결정의 근거 자료로서 거의 유일한 현실적 자료이다. 따라서 성적 평가가 교수의 즉흥적인 기분이나 타성 또는 아집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⑥ 評價의 公正性, 妥當性, 信賴度가 대학의 권위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 근래에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른바 학원사태로 말미암아 대학의 권위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의 강의를 質的 측면에서 충실을 기하고 공정하게 평가·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권위 회복이나 권위 유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평가는 공정한 관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목표나 이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높은 妥當度, 측정이나 평가의 기본 법칙에 입각한 높은 信賴度 등의 측면이 모두 강조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評價方法의 改善

여기에서는 현행 성적평가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개선방향울 잠정적으로 시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① 評價方法의 構成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평가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과제물, 출·결석 상황의 순으로 되어 있다(제3장 참조). 대학에 따라서는 예·복습상황, 학습태도 등의 평가도 규정해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성적 평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서 논의해 볼 만한 한 가지 문제는 출·결석 상황의 성적평가 반영에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칙이나 성적처리 규정 등에 의하여 수업시수의 1/3 이상의 결석자를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도록 明文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3장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교수들의 약 43%만이 이들을 성적평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학생들의 약 23%가 교수들이 결석자를 그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연 교수들의 43%가 학칙이나 규정에 명시된 대로 출·결석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신뢰하기 어렵다.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구성요소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과제물이라는 구성요소는 활용계획에 따라서는 교육적 가치가 특히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과제물은 또하나의 考查와 다름이 없는 평가요소일 수도 있지만, 잘만 계획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深化된 學習經驗을 갖게 함으로써 강의의 단순한 지식의 傳受 수준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교육에서는 과제물의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성적평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과제물은 성적평가에서 대체로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제출된 과제물이 실제로 평가되어 학생들에게 되돌려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다(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한 교수는 46.8%인 반면에 학생들의 70.9%가 되돌려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과제물의 教育的 價値를 활용하거나 과

제물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예컨대 과도한 학생 수와 교수의 직무부담 등의 요인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학 강의의 質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서 과제물의 教育的 活用度를 높이고 과제물의 평가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② 考查回數와 考查時間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필답고사 형식의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를 성적 평가의 주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약 3.3%의 교수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의 성적 반영률은 교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절반 이상의 교수들이 중간고사를 25~30%, 역시 절반 이상의 교수들이 학기말 고사를 35~40% 정도의 비중으로 성적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考查時間에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중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고사를 치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의 고사 시간은 통상 50분 정도로 제한되게 마련이다.

연구자들의 판단으로는 중간고사이건 학기말고사이건 간에 실제로 이루어진 강의량이나 학습량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고사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논술형의 單一출제 형식과 논술형 및 단답형의 混合 출제형식을 대부분의 교수들(85.7%)이 선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판단이다.

연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50분 간의 고사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논술형의 단일 출제형식인 경우 2~3문항의 출제가 고작이며, 논술형과 단답형의 혼합 출제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겨우 논술형 1~2문항과 단답형 3~4문항만을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사가 강의내용의 전반을 包括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考查의 包括性的 欠乏'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바쁜 수험시간을 의식한 나머지 깊이있는 思考를 요구하는 適用力, 分

析力, 綜合力 등 이른바 高次的 知力을 측정하는 출제를 기피하고 단순한 暗記力을 요구하는 출제로 흐르지 않을 수 없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는 고사는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나 구체적인 강의목표에 비추어서도 妥當度나 正當性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包括性이 적은 고사는 학생들의 유행 심리를 조장할 우려를 불러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고사에 대한 不信, 나아가서는 교수가 부여하는 성적에 대한 不信, 不滿, 冷笑主義의 태도와 결코 無關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의 실시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강의 담당 교수가 학기 중간과 학기 최종 수업시간에 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일정한 고사 시간을 설정해야 할 학사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대학에서는 고사 시간을 100분(2개 교시) 정도로 균등하게 연장하거나, 학점 수에 따라서 차등 연장하는 방안(예컨대 3학점 고사는 90분, 2학점 고사는 60분)을 채택해 볼 만하다.

③ 考查方法에 관련된 諸問題

주로 사용되는 필답고사는 바탕이 되는 評價理論이나 評價模型에 따라 출제형식이나 고사 실시방법, 고사결과의 해석 방법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로 形成的 評價對 總括的 評價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전통적인 평가이론이나 평가관에 있어서는, 평가란 어떤 교육활동이 종료되었을 때 그 교육활동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목표들이 실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전통적인 평가활동을 總括的 評價라고 부른다면, 이와 전혀 다른 새로운 평가모형으로 제안된 것이 이른바 形成的 評價이다(Scriven, 1967). 形成的 評價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새로운 평가는 어떤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교육활동의 부분적인 수정이나 개선의 필요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그 교육활동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들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향상하

는 데 기여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總括的 評價와 形成的 評價의 개념모형에 입각하여 본다면, 학생들의 최종적인 학업성적의 판정 자료로 사용되는 고사는 모두 총괄적 고사이다. 또한 한 학기의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수시로 시행되는 고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고사 결과가 학생들의 최종적 성적 판정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학생들의 잘못된 강의내용 이해나 學習困難點 등을 밝혀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을 바로잡거나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성적 고사라고 할 수 있다. 형성적 평가는 초·중등교육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수용되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는 모두 학생들의 최종적 성적 판정의 주요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총괄적 평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형성적 평가의 목적을 지닌 평가활동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는 데 한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즉, 우리의 현행 평가체제는 학생들의 최종적인 성적 판정을 위해서만 급급하고 있을 뿐이며,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평가에는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이미 大衆化 時代로 들어섰으며, 우리 대학생 중에는 학습과정상에 教育的 助力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면학 분위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는 길이 바로 대학교육의 質 향상에 직결되는 것이라면, 대학에서의 평가에 形成的 評價의 機能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시급한 연구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客觀式考査對 主觀式考査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교수의 85.7%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논술형 출제나 논술형+단답형의 출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객관식 출제만을 고집하는 교수는 조사대상 중 단 1명도 없고 객관식 단답형의 고사를 사용하는 교수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주관식 고사의 최대의 難點은 학생들의 필기 응답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출제 가능 문항 수에 큰

제약을 받게 되어 考査의 包括度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있어서 객관식고사는 압도적이라 할 정도로 유리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객관식고사는 그 나름의 문제점도 있고 출제 기술상의 난점도 있기는 하나 상당한 이용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수강생 수가 많은 저학년의 일반 교양과목이나 개론 강의 등에 객관식고사가 사용된다면, 체점에 따르는 빈거로움과 부담을 줄이면서 체점의 信賴度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아울러 주관식고사의 또하나의 큰 약점인 낮은 신뢰도의 극복 내지 개선을 위한 연구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로 相對評價對 絕對評價의 문제와 成績 判定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던 '80년대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성적처리 규정에 상대평가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明文으로 규정해 두었으나, '80년대 말부터 졸업정원제가 사라지면서 절대평가가 전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평가의 원리상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상대평가 체제에서 성적평점은 학생들의 성적상의 서열이나 상대적인 우열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습득했는지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성적평점의 판정 기준이 고정되고 성적평점의 판정 기준 설정에 있어 교수의 주관이나 편견 또는 아집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의 원리대로 성적판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확정된 조건에서 일관성있게 성적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에서는 성적평점이 학생들의 성적수준을 명확하게 밝혀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수가 주관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평점을 매겨 나갈 때 절대평가의 장점은 소멸할 뿐만 아니라 성적평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난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런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즉, 어떤 교수는 성적평점의 판정기준이 턱없이

높아서 A 평점이 5%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교수는 판정기준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나치게 낮아서 반수 이상 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A 평점을 받게 되는 혼란이 현행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 또한 확실한 실증적 연구는 없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국 대학교수들의 성적판정의 기준이 큰 폭으로 評價切下되어 A, B 등의 高成績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다짐해야 할 점은 절대평가란 결코 교수 개개인이 恣意로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매겨 나가는 任意 評價가 아니라는 것이며, 절대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일관성있는 기준이나 準據가 먼저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절대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이 쉽사리 단기간 내에 대학교수에게 수용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현행의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판정의 亂脈相을 제대로 밝히는 실증적인 연구라도 있어야 한다.

성적판정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딜레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수록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교수 개인의 主觀이나 慣行에 맡겨진다는 것은 남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④ 成績 表示法

성적평결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학은 예외없이 A, B, C, D, F의 英字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變形이 混用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가 대학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A⁺ A^o A⁻ B⁺ B^o B⁻ C⁺...F (예: 서울대)

A⁺ A^o B⁺ B^o C⁺...F (예: 충남대)

A⁺ A B⁺ B C⁺...F (예: 영남대)

대학마다 다양한 성적 표시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대학간 學點交換制나 외국과의 교류 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전국의 대학이 공통된 표시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본다. 그밖의 다른 표시법, 예컨대 P(及: pass)—F(落: fail), S

(성공적: satisfactory)—U(비성공적: unsatisfactory), W(수강포기: withdrawal), I(미완결: incomplete), R(등록하고 수강했으나 시험을 원하지 않았거나 면제받음: registered) 등의 기호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⑤ 複數 開設講座에서의 評點分布

대학에서는 동일한 강좌를 복수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교양영어’ 강좌가 한 학기에 10개나 개설되고 10명의 강사가 각각의 강좌를 담당했다고 하자. 이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0명의 강사가 공동 출제하여 하나의 고사를 만들고, 동일한 평결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매겨나가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미묘한 몇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첫째로, 아무리 공동 출제된 공통의 고사라 하더라도 고사내용이 모든 강좌에 똑같이 공평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고사내용의 衡平性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깨어진다면 일부 학생에게는 유리해지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불리해진다. 둘째로, 일부 강사의 교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 강좌에서 수강하도록 배치된 학생들에게 不利益이 생긴다. 셋째로, 강사 간에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不便感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⑥ 試驗管理의 徹底

시험의 관리를 適正하게 하는 문제는 출제내용의 사전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유지, 시험 현장에서의 각종 不正行爲를 막기 위한 감독의 철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일부 학생에게 부당하게 利·不利益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자체가 상당히 의미깊은 교육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분란한 분위기가 대학교육의 公信用이나 권위유지에 치명적인 危害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 대학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규정을 설정해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규정도 언제나 반드시 能事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주어질 가혹한 처벌을 예결한 감독자가 묵인하거나 보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처벌받은 학생의 어떤 보복행위(?)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 때문에 역시 부정행위를 덮어주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未決 상태로 남을 문제일지도 모른다.

근래에는 복사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말미암아 新種 부정행위도 일어나는 모양이다. 특히, 동일한 출제내용의 고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즉, 한번 사용된 문제지가 대학가의 복사 인쇄업소로 흘러나가고, 모범답안(?)까지 기입된 복사판 문제지가 학생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음에서 논의 될 問題銀行의 이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⑦ 考查結果의 分析과 活用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多目的的이다. 우리는 성적평가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動機化 機能), 자신의 면학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고 아직도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또한 상세하게 밝혀 주며(피드백 機能),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실력을 밝힘으로써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에 배치해 주며(教育的 配置 機能)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분석함으로써 수업 개선을 도모하는(授業改善 機能) 등 실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적평가 활동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고작 動機化 機能 정도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도외시되든가 간과되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평가의 授業改善 機能이다. 평가의 수업 개선 기능은 학생들의 답안지야말로 교수의 교수능력이나 교수의 강의 중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라는 관점에서 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總括的 評價와 形成的 評價의 개념도 원래는 수업개선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경우 한 강의의 최종적인 效能度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평가는 總括的 評價에 관련되어 있고, 강의내용 중의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지, 강의목표 중의

어떤 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저조한지 등을 밝히는 활동은 강의나 수업에 대한 핵심적인 형성적 평가활동이다. 여기서 수업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평가활동이 바로 형성적 평가활동이다. 또한, 교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강의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강의를 內質化하는 데 형성적 평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평가의 이용가치가 충분히 활용되려면 답안지는 채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되어야 하고 분석된 자료에서 수업개선에 관련된 정보를 읽어내는 논리와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교수들에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명제는 평가방법의 개선도 한번 실시된 평가방법의 결과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실시된 고사나 검사의 결과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통틀어 檢査 良好度 分析法이라 부른다. 이런 종류의 분석을 통해서 한 고사를 전체적으로 또는 개개의 문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良好度가 분석된 다수의 문항을 수집해 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고사를 편집할 수 있는 이른바 問題銀行의 설치와 활용이 가능해진다. 問題銀行은 다수의 문항들이 수록되기 때문에 문항 중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도 큰 지장이 없다는 점, 원하는 대로의 辨別力이나 難易度에 알맞게 良質의 고사를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편집해 낼 수 있다는 큰 利點이 있다.

⑧ 代案的 評價方法의 모색

끝으로 몇 가지 代案的 評價方法의 모색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잠시 언급해 볼까 한다. 전통적으로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에 있어서,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뚜렷한 관례로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교과서나 참고서를 자유롭게 보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이른바 開放式 考查(open-book tests), 문제지를 집에 가지고 가서 충분한 시간과 참고자료를 이용하면서 치르는 이른바 家庭 考查(take-home tests) 등의 대안적인 평가방법도 시도되고 연구될 만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사를 치르게 하면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그대로 베껴내면 되는 문제는 출제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묻는 단순한 출제에서 벗어나고, 깊이 생각해야 하고 독특한 문제해결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高次的 知力을 활용하는 출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생 쪽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참고자료라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허용되기 때문에 판에 박힌 획일적인 답안이나 남의 것을 베껴낸 무성의한 답안으로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자각을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답안을 유도할 수 있다.

덧붙여서 3~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소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작성하는 과제물도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시도해 볼 만하다. 개방식 교사와 가정 교사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어떤 과제에 임했을 때 평가가 아닌 실제사회의 장면에서는 협동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이다. 그뿐 아니라 공동과제 형식의 과제물은 학생들의 협동력, 책임의식의 신장에도 적지 않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大學當局의 役割

교수들의 評價觀의 변화를 일으키고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수들의 자발적인 자각과 자율적인 노력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각과 자율적 노력은 먼저 교수 각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어 점차 학과 수준, 단과 대학의 수준, 한 대학 내의 모든 단과대학 차원으로 확산되는 식으로 순서를 밟는 것이 또한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당국은 분명히 側面支援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에 입각하여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조직적인 評價改革 共同研究를 지원하는 교수들이나 학과 또는 단과대학 등이 있는 경우 대학 당국은 연구비, 조교배치,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이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해마다 정부나 산업체 등에서 상

당한 액수의 연구비 지원이 대학 측에 주어져 왔으나, 이러한 연구비는 교수 개인인의 학술적 관심과 관련된 연구과제나 또는 국가나 정부의 정책적 과제에 투입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비의 극히 적은 일부뿐이나마 대학의 자체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에 할애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발전, 대학교육의 質 향상을 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한 소신이다.

둘째로 교육연구소나 교육문제연구소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이 연구소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자체 발전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게 하거나, 또는 자체 발전을 위한 연구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권장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소들도 몇몇 관계되는 교수의 학문적 관심사에 관한 연구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자체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개발 과제를 설정하여 대학교육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대학 내에 評價研究委員會 등의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평가에 관련된 제반 연구 및 기획 업무(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입학고사, 대학원 수준의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등)를 관장하고 평가연구 업무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앞으로 대학입시가 자율화되어 대학의 책임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넷째로 위의 교육연구소나 평가연구위원회 중심으로 교수들의 성적평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규정, 지침, 자료 등을 모은 「大學評價便覽 (Manual for Academic Evaluation)」을 작성하여 교수들에게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발지원 업무도 대학 당국이 맡아야 할 책임이다.

다섯째로 대학 내에 어느 정도 연구 분위기가 개혁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대학 당국은 학년 초에 주로 신입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회를 기획,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수회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는 성적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입교수 연수회는 3~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전체 교수 연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提 言

① 대학에서의 성적평가 활동의 개혁은 대학 강의의 質의 向上이나 대학교육의 內實化를 위한 前提要件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학당국 및 대학교수 간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② 성적평가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들의 評價觀의 변화가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당국은 學年初에 신입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회를 개최하고, 연수 주제 중에 성적평가의 개선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수회는 3~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전체 교수 연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현행의 성적평가 방법 중 과제물의 교육적 중요성에 비추어 과제물의 요건, 성적 반영 방법이나 비중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④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이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고사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적절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⑤ 대부분의 교수들이 주관식 문항 형태인 論述型 考查를 선호하고 있음이 판명된 바, 출제 문항 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평가도구로서의 包括性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고사 시간의 제약 때문에 학생들의 강의 내용의 單純暗記나 피상적 이해력을 강조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평가도구로서의 妥當度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논술형 문항의 채택의 信賴度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내지 연구노력이 요망된다.

⑥ 대학에서의 성적평가 활동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최종적인 성적을 판정하는 이른바 평가의 總括的 機能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며, 강의의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의 學習困難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조력을 제공하는 평가의 형성적 기능이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활동에서 形成的 機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연구 개발될 필요가 있다.

⑦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絕對評價 方法이 채택되고 있으나 절대평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적 판정

의 基準 내지 準據가 교수간 및 대학 간에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성적 평점의 의미나 可比較性이 극도로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점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연구, 교수들의 평점 부여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

⑧ 成績評點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대학 간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대학 간의 交流나 學點交換制의 전망에 비추어 成績評點의 표시방법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 複數로 개설되는 강좌에 있어서는 共同出題, 共同評價의 현행 방식이 바람직하나 일부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일부 교수에게 불편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⑩ 대학교육의 公信力이나 권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시험의 관리는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동일 고사의 반복 사용도 止揚되어야 한다.

⑪ 考查結果는 다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교수방법의 개선이나 평가방법의 適正化를 위해서 活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⑫ 성적평가 방법의 개혁은 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개혁을 위한 실천적 노력도 교수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학과, 단과대학, 대학 내의 모든 단과대학 차원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⑬ 대학에 既設되어 있는 교육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학교육의 自體發展을 위한 연구를 活性化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側面支援이 요망된다. 대학내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代案的 評價方法의 연구 개발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⑭ 評價研究委員會 등의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대학입시를 비롯한 대학 내의 모든 평가업무에 관한 기획, 조정, 연구들을 담당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기구는 대학입시의 자율화 추세에 비추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⑮ 교수들의 평가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각종 규정, 방법, 지침자료 등을 망라한 「大學評價便覽」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